『종교와 문화』 제 4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1. pp. 71-99.

애니 베어드의 소설에 표현된 타자의 종교*

방 원 일**

Ⅰ. 머리말
Ⅱ. 애니 베어드의 생애와 저술
Ⅲ. 한글 소설에 표현된 전통 종교
1. 『장자노인론』: 이교도의 마을
2. 『샛별전』: 귀신을 위하지 말 것
3. 『고영규전』: 보배의 기도
Ⅳ. 영어권 독자에게 소개된 한국종교
1. 『한국의 새벽』의 한국종교 묘사
2. 묘사와 종교 현실의 관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안애리, 1864-1916)는 1891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1916년 평양에서 사망할 때까지 교육선교에 힘쓴 북장로교 선교사이다. 그는 숭실대학교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의 부인으로, 숭실대학교를 포함한 평양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뛰어난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 학생을 위한 한글 과학 교과서를 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글의 검토 대상이 되는 선교소설을 한글과 영문으로 저술하였다. 그는 한국 개신교 선교의 기반을 닦은 1세대 선교사 중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한 여성 선교사로 꼽힌다.[1)]

애니 베어드의 자료는 최근에 잘 정리되어 소개된 편이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다. 우선 애니 베어드의 국내 저술은 숭실대학교를 중심으로 저술 대부분이 영인 출간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2)] 관련 연구도 다수 축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룰 애니 베어드의 선교소설에 관해서는 작품 단독으로, 혹은 둘을 짝지어서 줄거리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3)]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소설들이 조선 시대

---

1) Harry A. Rhodes,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Seoul: Chosen, Post Chapel, John D. Wells School, 1934), 77. 로즈는 장로교선교 50주년인 1934년에 쓴 글에서, 초기 선교사 중 저술이 많은 선교사 8명을 꼽았는데, 그중 여성은 애니 베어드와 릴리아스 언더우드(L. H. Underwood) 두 명이 포함되었다.

2)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베어드 총서" 6, 7, 10권에 애니 베어드의 한글 소설이 원본과 현대어본이 포함된 형태로 출판되었다. 애니 베어드, 『싯별젼』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애니 베어드, 『쟝자로인론』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5). 이상의 한글 소설을 모아 현대어로 소개한 다음 책도 참고할 수 있다. 애니 베어드, 장경남·오지석 옮김 『구한말 선교사 애니 베어드의 한글 선교소설』 (보고사, 2021). 애니 베어드가 편찬한 한글 교과서는 숭실대학교 HK+사업단 "자료총서"로 영인되었다. 애니 베어드 편역, 『동물학』 (선인, 2020); 애니 베어드 편역, 『식물도셜』 (선인, 2020); 애니 베어드 편역, 『생리학초권』 (선인, 2020). 한국어 교본 "Fifty Helps for the Beginners in the Use of Korean Language"는 다음 책에 해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윌리엄 마틴 베어드·애니 베어드, 윤영실 옮김,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한국어 학습서』 (선인, 2020). 또 애니 베어드가 선교사 생활에 관해 저술한 다음 저서가 영인본과 함께 번역되었다. Annie L. A. Baird,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13); 애니 베어드,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 성신형·문시영 옮김, (선인, 2019).

3) 김인섭,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회심(回心)의 두 유형: 최병현의 「성산명경」과 애니 베어드의 「따라 따라 따라 예수따라 가네」를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13-2 (2008): 23-46; 이인성, 「애니 베어드의 선교 문학의 세계」, 『문학과 종교』 13-2 (2008): 225-50;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의 『고영규전(高永規傳)』(Two Short Storie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12 (2006): 75-96; 차봉준, 「근대 전환기 기독교 소설과 메타모포시스: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2 (2021): 329-54. 애니 베어드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주목할

여성의 삶을 어떻게 재현하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4] 이 외에도 애니 베어드의 한글 찬송가 작시, 과학 교과서 저술, 한국어 교재 등 다양한 측면의 기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5]

이 글의 목적은 애니 베어드가 저술한 선교소설에서 한국종교가 묘사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애니 베어드가 1890년대와 1900년대에 걸쳐 출판한 소설들에는 조선 시대 여성의 삶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더불어 그들이 과거에 의존했던 종교에 관한 묘사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는 당시 조선의 종교에 관한 애니 베어드의 관찰을 반영한 것이다. 애니 베어드의 많은 저술 중에서 한국종교를 주제로 한 독자적인 글은 없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포함된 세부 묘사는 그가 한국종교, 특히 여성의 종교문화를 면밀하게 관찰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의 소설이 19세기 말 한국의 종교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충분한 가치를 지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애니 베어드가 저술한 한글 소설 3편과 영문 소설 1편이다. 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에서는 애니 베어드 저작을 문학 텍스트로 분석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종교적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종교적 주제는 속죄, 회심과 같은 기독교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애니 베어드 시선에 포착된 타자의 종교, 즉 당대의 한국종교라는 종교학적 관심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종교적 타자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주제 아래 그의 한글과

만한 최근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서신혜, 「『고영규전』의 서술 방식과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2014): 135-60; 허순우, 「19세기 말 애니 베어드의 문서선교에 대한 관심과 <샛별전>」, 『한국고전연구』 52-1 (2021): 203-34; 허순우, 「대속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전도지 <장자노인론>」, 『동아시아고대학』 62 (2021): 177-205.

4) Hyaeweol Choi,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chap. 5; 곽승숙, 「애니 베어드 신소설 연구: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2 (2014): 139-59.

5) 박종현, 「애니 베어드의 한글 찬송가 번역」, 『피어선신학논단』 8-1 (2019): 74-102; 오선실,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생리학의 수용과 변용: 애니 베어드 역, 『싱리학초권』(1908)과 안상호 역 『신편생리학교과서』(1909)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2021): 343-368; 이숙, 「애니 베어드의 한국어학습서 Fifty Helps의 내용 연구」, 『어문론총』 80 (2019): 39-71.

영문 소설을 비교한다면, 종교문화를 서술하는 세밀함이나 대상을 묘사하는 강도에서나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작품과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작품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애니 베어드의 소설적 형상화와 종교 현실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학의 관점에서 애니 베어드 소설이 지니는 가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애니 베어드의 생애와 선교활동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그가 저술한 한글 소설 『장자노인론』, 『샛별전』, 『고영규전』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한국종교 서술이 나타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한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쓰여진 이 소설들에서 한국종교의 폐해를 공격하는 데 주안점이 맞추어진다. 4장에서는 그가 저술한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을 소개하고 한국종교 서술이 두드러진 부분을 소개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미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이 소설에서는 한국종교에 대한 더 상세한 묘사가 나타나고 이국적 종교 묘사의 전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소설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종교 현실과 소설의 묘사 사이의 관련성과 차이점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Ⅱ. 애니 베어드의 생애와 저술

애니 베어드는 1864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하노버대학교(Hanover College)에서 수학하고 1885년에 워시번대학교(Washburn University)를 졸업하였다. 그는 하노버대학교 재학 시절에 윌리엄 베어드를 만난 바 있고,[6] 선교사 준비를 하던 1890년에 베어드와 결혼하였다. 베어드 부부는 결혼 직후 한국으로 떠나 1891년 2월 1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입국 직후 애니 베어드는 남편과

6) “Biography of Annie Laurie Adams Baird by William M. Baird, 1928” in Annie Laurie Adams Baird Papers, 2. (Pearl Digital Collection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https://digital.history.pcusa.org/islandora/object/islandora:113212

함께 부산으로 발령받아 선교기지를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1896년에는 대구에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고 서울에 올라왔다. 그리고 1897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된 평양에 부임하였다. 그는 남편이 설립한 평양 숭실대학교(숭실학당)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여자성경학교와 숭의여학교의 교사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교육에 힘썼다. 그는 안식년 때 루이스 오길비(Louis Ogilvy)를 초빙해 선교사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평양 외국인학교로 발전하였다. 그는 1908년에 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1915년 미국에서 치료가 실패로 끝나자 선교지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심하고 1916년에 극적으로 미국에서 평양으로 돌아와서 사망하였다. 그의 장례식에는 평양의 교인과 학생들이 가득하였으며 신학생과 대학생이 교대로 관을 묘지까지 운반하였다고 한다.[7] 애니 베어드는 1세대 선교사의 일원으로서 부산, 대구, 평양에 한국 개신교 선교의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교육 사업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애니 베어드는 뛰어난 한국어 학습 능력을 보였고, 변변한 한국어 교재가 없는 동료 선교사를 위해 교재를 제작하였다. 그가 저술한 『50개의 도움말』(Fifty Helps for the Beginners in the Use of Korean Language)은 한국어 동사 활용을 중심으로 자주 사용되는 문형 50개를 정리한 회화 위주의 교재로, 선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하는 실용적 목적을 가졌다.[8] 실제로 이 책은 1896년에 초판이 발행된 후 6판(1926년)까지 개정되면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한국 선교 현장에서 신입 선교사에게 표준교과서로 사용되었다.[9]

애니 베어드는 어학 재능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 기여하였는데,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찬송가 가사를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

---

7) 리처드 베어드,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 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2016), 167.

8) 윤영실, 「해제」,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한국어 학습서』, 윌리엄 마틴 베어드·애니 베어드, 윤영실 옮김 (선인, 2020), 18.

9) 리처드 베어드,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 165.

로 편찬한 『챤숑가』(1908)에는 애니 베어드의 번역과 창작이 56편이나 수록되었는데, 현재 『통일찬송가』(1983)에도 40편이나 남아있다.[10] 애니 베어드는 숭실학당에서 사용할 중등 과학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던 교재를 적절히 편집, 번역하여 『동물학』(1906), 『식물도설』(1908), 『생리학초권』(1908)을 출판하였다. 이 번역 교재의 특징은 한문을 통해 새로운 용어를 소개한 과학 분야 다른 저서들과는 달리 영어에서 직접 순한글로 번역한 생물학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의 개신교 선교 기초를 놓은 1세대 선교사에 속한다. 그는 1세대 선교사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여성 선교사로서 연구자들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그가 주목받은 것은, 우선 숭실대학교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의 부인으로서 학교 설립에 관련된 기여 때문일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동료 선교사 중 탁월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기여한 분야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 그를 주목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1세대 선교사로서의 특징 때문이다. 1세대 선교사는 선배 선교사의 축적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의 나라 한국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다. 그만큼 한국과의 첫 만남의 경험이 강렬했고, 여기에는 한국종교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종교만을 다룬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소설 안에는 한국종교와의 만남의 경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목 대상이 된다.

Ⅲ. 한글 소설에 표현된 전통 종교

애니 베어드의 어학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된 분야는 한글 소설 창작이다.[11] 그는 단순히 한글로 창작하는 것을 넘어 한국 고전소설의 양식과 어휘까지 십분

10) 이숙,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사』 (파주: 보고사, 2020), 128-30.

11)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창작물들은 연구자에 따라 선교문서, 전도소설, 한글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여기서는 한글소설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다.

활용하여 복음 전달을 위한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전통적 형식 통해 낯선 사상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전달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들은 미국인의 저작이지만 한글로 창작된 한국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한글 소설은 1897년에 출판된 『장자노인론』(The Story of Old Chang), 1899년에 출판된 『샛별전』(The Story of Sait Pyul), 1911년에 출판된 『고영규전』이다.[12] 한글 소설 창작과 출판은 애니 베어드의 한국 선교활동(1891년-1916년) 전반에 걸쳐, 특히 평양 부임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었다. 한편 영문 소설 『한국의 새벽』(Daybreak in Korea)은 1909년 뉴욕의 플레밍 출판사(Fleming H. Revell Company)에서 출판되었다. 이는 베어드 부부의 두 번째 안식년(1908년 6월-1909년 6월)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애니 베어드의 한글 소설과 영문 소설은 창작 시기와 장소, 무엇보다도 대상 독자와 창작 목적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한국종교를 묘사하는 방식에 반영되었다. 이하에서는 그의 한글 소설을 소개하며 한국종교 묘사를 살핀 후, 영문 소설에 나타난 묘사와 비교하도록 하겠다.

애니 베어드의 한글 소설에는 기산(箕山) 김준근(金寯根)이 그린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13] 이 사실에 관련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개항기

---

12)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판본이다. 애니 베어드(Mrs. A. I. A. Baird), 『싯별전』 (대한예수교셔회, 1905); 애니 베어드(Mrs. A. I. A. Baird), 『쟝자로인론』 (대한예수교셔회, 1906); 애니 베어드(Mrs. A. I. A. Baird), 『고영규전』 (예수교셔회, 1911). 이중 『쟝자로인론』의 숭실대 판본은 1906년에 출판된 것이지만 『코리언 리퍼지토리』(Korean Repository)의 광고에 따라 1897년에 출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허순우, 「대속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전도지 <장자노인론>」, 183-184.) 또 『싯별전』의 숭실대 판본은 1905년에 출판된 것이지만 다른 출판목록을 통해 초기 출판연도가 1899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허순우, 「19세기 말 애니 베어드의 문서선교에 대한 관심과 <샛별전>」, 217-218.) 참고로 1911년에 발간된 『고영규전』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소설 『부부의 모본』과 합본하여 발간해서 영문 제목이 “Two Short Stories”로 표기되었다.

13) 『장자노인론』에 4점, 『샛별전』에 4점, 『고영규전』에 6점,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부의 모본』에 4점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출판물에는 김준근의 작품임을 알리는 저자 표시나 낙관이 있지는 않지만 화풍과 그림체로 보아 김준근의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에 활동한 풍속화가 김준근은 원산에서 선교사 게일(James S. Gale)을 만나 1895년에 간행된『천로역정』의 삽화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14] 외국인과 다수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그가 남긴 방대한 삽화나 풍속화집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산 출신으로 원산과 부산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말고는 생애에 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가 애니 베어드 소설의 삽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김준근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가 게일의『천로역정』삽화 작업을 한 이후에도 예수교서회에서 발간된 소설에서 비슷한 작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은 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가 출판 과정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천로역정』때 했던 것처럼 번역본을 읽고 한국적 배경과 도상으로 재해석하여 삽화를 그렸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게일이나 애니 베어드와의 직접 교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나마『천로역정』삽화에는 중국어본을 참조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반해,[16] 애니 베어드 소설 삽화는 순전히 텍스트 해석을 기반으로 창조된 작업이었다. 다시 말해, 애니 베어드 소설 삽화는『천로역정』작업의 연장선상인 동시에 더 독자적이고 심화된 기독교 이해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애니 베어드가 창작한 한글 소설을 출간 순으로 간단히 소개하며 한국종교가 묘사된 양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장자노인론』: 이교도의 마을

『장자노인론』은 복음서의 '혼인 잔치 비유'를 한국 상황으로 패러디한 전도 소설이다[17] '혼인 잔치의 비유'는 한 임금이 사람들을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였

14) 유영식,『착혼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진흥, 2013), 138-139.

15) 조은희,「개항장의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0), 26-40.

16) 박효은,「『텬로력뎡』 揷圖로 읽는 救援의 길」,『《텬로력뎡》 삽도』(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59-60.

17) 차봉준,「근대 전환기 기독교 소설과 메타모포시스」, 335.

그림 1 이교도 마을 묘사 (『장자노인론』, 2)

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복음이라는 하늘나라 초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는 취지의 비유이다. 『장자노인론』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도는 <마태복음> 22장 1-14절에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세부 묘사는 <누가복음> 14장 15-24절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초대에 불응하고 그 대가로 마을이 파괴된다는 원래 이야기는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애니 베어드는 전통적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야기를 한국적 맥락 안에 넣어 이질감을 줄였다. 원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임금은 장씨 노인으로 설정되었다. 그의 집은 "크고 명랑한 곳에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 좌우에 장송녹죽(長松綠竹)이 우거지고 사시(四時)로 경개(景槪)가 절승(絶勝)한" 곳에 있다. 애니 베어드는 고전소설의 상용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노인은 잔치에 사람을 부르기 위해 초대 내용을 "통문(通文)에 다 쓰고 도서(圖署)를 쳐서" 보낸다. 원문에는 없는 한국적 묘사이다. 또 원래 이야기에서는 임금이 노해서 초대에 불응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 도시를 불살라버렸다는 내용은, "하늘에서 서기(瑞氣)가 비치며 갑자기 지동(地動)하더니 그 동네가 지함(地陷)되어 바다로 들어간 것 같더라."라고 동양적 맥락에서 순화하여 표현되었다.[18]

18) 애니 베어드(Mrs. A. I. A. Baird), 『쟝자로인론』 (대한예수교셔회, 1906), 1, 4, 3; 애니 베어드, 『쟝자로인론』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5), 14, 15, 18. 편의상 인용은 현대어 표기로 변환하고 한자를 병기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장자노인론』에서 종교문화는 이교도 세계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간략하게 등장한다. 첫째는 부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세속적인 마을을 묘사할 때이다. 애니 베어드는 마을의 타락상을 열거하던 중 "경 읽는 소리도 나니 반드시 병든 사람 있는 것 같고"라고 언급한다.[19] 주로 판수가 담당했던 독경(讀經)이 민간에서 치병의 역할을 담당했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천당 가기 어렵지 않다며 하는 말"을 전하는 대목이다. 기존의 유교, 불교, 무속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내가 불효한 바도 없고 봉세사(奉世祀)도 못한 바도 없고 염불로 말하여도 나와 같이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없을 듯하고, 또 사신(邪神) 위하는 것을 말하면 나보다 더 자주 굿한 사람이 없을 터이오."[20]

『장자노인론』의 이교도 마을은 애니 베어드가 선교의 대상으로 설정한 한국 사회를 압축해놓은 것이다. 복음서 비유와 『장자노인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원래의 복음서 비유에서는 가까운 이웃을 초대했다가 퇴짜를 맞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장자노인론』은 처음부터 동네의 모든 사람을 초대 대상으로 했다.[21] 이는 한국 사회를 선교하겠다는 애니 베어드의 의지가 반영된 변경으로, 이 구도에서 기존의 종교 전통들은 기독교 선교의 장애물로 묘사되었다.

2. 『샛별전』: 귀신을 위하지 말 것

『샛별전』은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 샛별이의 희생을 통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홍경대가 서울에 갔다가 샛별이라는 오갈 데 없는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샛별이는 서울에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닌 개신교 신자였다. 반면에 홍경대의 부인 김씨는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로 샛별이의 존재가 귀신을 노하게 할까 두려워 샛별이를 박대하고

---

19) 베어드, 『쟝자로인론』(대한예수교셔회), 3; 『쟝자로인론』(숭실대학교 출판국), 14
20) 베어드, 『쟝자로인론』(대한예수교셔회), 15; 『쟝자로인론』(숭실대학교 출판국), 19.
21) 허순우, 「대속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전도지 <장자노인론>」, 197.

그림 2 샛별이가 간호하는 모습 (『샛별전』, 21)

궂은일을 시켰다. 그러던 중 염병(장티푸스)이 유행하여 외아들 삼복이가 심하게 앓게 되었다. 김씨가 무당을 불러 크게 굿을 하였지만, 아들은 죽고 홍경대 부부마저 염병이 든다.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 아무도 돌보지 않았으나, 샛별이 혼자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샛별이가 병에 걸려 결국 죽는다. 홍경대 부부는 지난 일을 뉘우치고 샛별이가 말하던 예수교에 관해 알아보고 신자가 되었다.

이 소설은 김씨 부인의 무속 신앙과 샛별이의 예수교 사이의 대립 구도를 보여준다. 소설 도입부에서 김씨 부인의 무속 신앙이 상세히 소개된다. 그것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 밤마다 그 집에 귀신이 많아서 장난을 몹시 하니 집안이 다 어지럽고 세간도 상한 것이 많고, 또 귀신이 그 외아들에게 무슨 못된 작폐를 할까 대단히 근심하여 돈을 수백 냥이나 들여 고사를 부지런히 하였으되 멈추지 아니하고 돈을 쓸수록 더욱 요란하더니[22]

반면에 샛별이는 선교사에게 배운 '예수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샛별이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전하며 기존 종교의 소용없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22) 애니 베어드(Mrs. A. I. A. Baird), 『싯별젼』 (대한예수교셔회, 1905), 1; 애니 베어드, 『싯별젼』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14.

"염불도 하지 말고 귀신도 위하지 말고 조상도 공경치 말라는 말인가?"라고 놀라 묻자, 샛별이 다음과 같이 답한다.

> "염불을 죽도록 한들 유익한 것 무엇이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부처가 우리 죽은 후에 좋은 데로 보낼 권세가 어찌 있으리오? 죽은 조상 위하는 것도 쓸데없으니, 우리 부모가 계실 동안에 효성하는 것이 옳고, 계실 때에 잘 대접하고 공경할 것이거늘 그 외에 다른 걸로 효도할 것이 무엇이오? 죽은 후에 아무리 돈을 써서 좋은 음식을 차려 드릴지라도 돌아간 사람이 밥을 잡수실 수 있겠소? 예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을 본 이가 누구뇨? 내 생각에는 우리 조상이 하느님의 명대로 하였으면 좋은 데로 갔을 터이요, 또 하느님의 명대로 아니 하였으면 지옥에 갔을 것이니, 어디든지 간 곳에서 어찌 세상에 다시 오실 수 있겠소? 또 굿하는 것으로 말하면, 무슨 까닭으로 귀신을 위합니까? 내게 해로운 일을 볼까 무섭고 또 병들어 죽을까 무서워하여 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헛된 일이요,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귀신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어디서 얻으리까? 그런 고로 전능하시고 착하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더럽고 해롭게 하는 귀신을 위하는 것이 어찌 미련한 일이 아니리오?[23]

위 인용문에는 당시 개신교 전도에 사용된, 전통 종교를 공격하는 논리가 요약되어 있다. 불교의 염불, 유교의 제사, 무속의 굿은 의례의 실제적 효험이 없다는 이유에서, 즉 그 '권세 없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것으로 공격받는다. 이후 소설은 귀신 섬기는 것의 '권세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아들이 염병에 걸리자 김씨 부인은 열심히 굿을 한다. 애니 베어드는 이를 꽤 상세히 묘사하였다. "무당이 좋은 음식을 차려두고 제금(提琴)을 치고 춤추며 세악수로 장구를 치고 피리를 크게 불면서 두어 날을 쉬지 아니하고 착실히 굿을 하여도 삼복이 병이 낫지 아니하고 굿을 할수록 더욱 앓더라."[24] 그러나 큰 굿을 했음에도 병은 낫지 않아

---

23) 애니 베어드, 『싯별전』(대한예수교셔회), 14-15; 애니 베어드, 『싯별전』(숭실대학교 출판국), 23.

24) 애니 베어드, 『싯별전』(대한예수교셔회), 19; 애니 베어드, 『싯별전』(숭실대학교 출판국), 26.

아들이 죽었고, 부부에게 전염된 염병이 샛별의 기독교적 희생을 통해 치유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효험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된다.

『샛별전』은 소설 형식을 띤 전도 문서이다.[25] 이 소설의 핵심은 줄거리보다도 샛별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설교 내용이다. 샛별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상 선교사 애니 베어드가 한국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안에는 전통 종교에 대한 애니 베어드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타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은 전도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전통 종교 중에서도 무속이 기독교의 주된 경쟁자로 설정되어있다는 점, 무속과 기독교의 기도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적 의례의 효험을 문제 삼는다는 점, 치병이라는 소재를 통해 구원의 유효한 길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3. 『고영규전』: 보배의 기도

『고영규전』은 고영규, 길보배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린 전도 소설이다. 영규는 어릴 적에는 만물의 이치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으나, 장성하여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 보배를 박대하고 서울에 올라가 방탕하게 생활하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옥에서 전도자를 만나 기독교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태어난다. 아내가 보내준 돈으로 출옥한 후에 집에 돌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한편 보배는 시집온 후 구박받으며 지냈고, 아들을 낳기 위해 백일기도까지 드렸음에도 딸 셋만 낳고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버림받은 여성이다. 그러나 보배는 예수를 알게 되어 위안을 얻고 기도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역시 기독교를 믿어 새사람이 된 남편과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고영규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전통사회 여성 길보배가 조혼(早婚)과 남아선호(男兒選好)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다. 저자 애니 베어드는 여성 선교사로서 여성

25) 허순우, 「19세기 말 애니 베어드의 문서선교에 대한 관심과 <샛별전>」, 218-219.

신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기에 조선 여성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을 소설에서 상세히 묘사하였다.[26]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힘든 처지의 조선 여성들이 의존한 종교적 수단에 관련해 애니 베어드가 상당한 이해를 갖고 상세한 묘사를 소설 속에 남겼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보배는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자,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리게 된다.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보배가 날마다 향을 가지고 절에 올라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비는 말은, "아들 낳게 하소서" 하고, 또 중에게 쌀과 돈을 주며 이처럼 백일기도 할 동안에는 몸을 정결케 하려고 매일 목욕하며 고기도 먹지 아니하더니…[27]

그러나 소원한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배는 딸만 셋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더 심한 구박을 받았고, 남편은 실망하여 집을 나간다. 여성으로서 겪는 고통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보배는 민간신앙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 신앙은 '귀신 공경'이나 '귀신을 위함'이라고 표현된다.

> 괴로운 것은 보배가 딸만 낳는 것과 또 남편이 저를 버리고 나간 것이 다 귀신에게 죄를 지어 그러한 줄 알고 더욱 귀신을 공경하여, 물길러 갈 때에는 밥을 가지고 가서 물에 던지고 나무를 지나갈 때에도 채색 헝겊과 밥을 꾸려 매달며, 또 집에 있을 때에는 주왕귀신[28]에게 이같이 정성으로 위하며…[29]

보배는 중첩된 어려움 속에서 우연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다만 소문

---

26) 곽승숙, 「애니 베어드 신소설 연구」, 156.

27) 애니 베어드(Mrs. A. I. A. Baird), 『고영규전』 (예수교셔회, 1911), 6;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19.

28) '주왕귀신'은 조왕(竈王)을 일컫는 방언이다. '주왕각시'라고도 불린다. 참고로 '주왕'은 그릇을 얹어 놓는 선반인 '살강'의 경기도, 황해도 방언이다.

29)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예수교셔회), 14;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숭실대학교 출판국), 24-25.

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라 개신교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한 상태였다. 보배는 이 종교에서 여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믿게 해주기를 '빌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신앙 행위의 맥락에서 개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설정이다.30)

그림 3 보배가 기도드리다 남편을 만난 장면 (『고영규전』, 17)

> "어떻게 섬기면 좋다고 하는 말을 못 들었소? 밤에 나가서 물을 떠놓고 칠성에게 절한다고 하더이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필경 그러할 것이다."하고 가더라. 보배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밤마다 나가서 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고 칠성에게 절하고 구하기를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31)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남편이 집에 돌아오다가 보배가 빌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부부는 기쁘게 재회하고 개신교 부부가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줄거리에 따르면 보배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칠성(七星)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 전개에 따른 설정인지, 전통적인 믿음의 힘을 인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암시되는 중요한 사실은 초기 여성 개신교인의 신앙이 전통적인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911년에 출판된 『고영규전』은 1909년에 출판된 영문 소설 『한국의 새벽』과

30) 토착적 예배 문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300-4.

31)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예수교셔회), 16;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숭실대학교 출판국), 26-27.

인물, 주요 사건, 구성에서 일치하는 점이 많기에 비교해서 이해해야 한다. 아래에서 상세히 논할 내용이지만, 『고영규전』은 먼저 나온 『한국의 새벽』의 소재와 구조를 가져와서 한국 독자를 위해 변형한 것이다.[32] 『한국의 새벽』에서 장황하게 묘사된 한국종교는 『고영규전』에서 축약적으로 제시되었다. 전통종교의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 한국 독자들에게 상세한 묘사는 불필요했다. 대신 강조된 것은 한국인의 세계관이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세 편의 소설은 전도문서의 성격을 갖기에, 한국 전통종교를 극복 대상으로 삼는 공격적인 묘사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영규전』처럼 한국종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이 조심스레 담겨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른 의도와 독자층을 가진 영문 소설 『한국의 새벽』에서 한국종교가 다루어진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Ⅳ. 영어권 독자에게 소개된 한국종교

『한국의 새벽: 극동의 변화 이야기』(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는 1909년 미국에서 출판된 선교소설이다.[33] 전체 9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전반부에는 전통사회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여성 보배가 기독교를 만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후반부에는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무속인 심씨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보배는 가난한 부모에 의해 열두 살 때 팔려가서 힘겨운 시집살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딸도 천연두(손님)에 걸려 죽게 된다. 보배는 다시 팔려가 방만식을 남편으로 맞이한다. 종살이와도 같은 시집생활을 하던 보배는 미국인 선교사를 만난 후 희망을 찾고 남편을

32) 서신혜, 「『고영규전』의 서술 방식과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 140-144.

33) 국내에는 유정순이 『먼동이 틀 무렵』 (대한기독교서회, 1981)으로 번역하였고, 2006년에 개정판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디모데, 2006)이 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본의 제목을 따르지 않고 원서를 직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득하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반면에 무당 심씨는 기독교에 적대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보배의 딸이 병에 걸리거나 보배의 시집살이가 고될 때 상담자가 되고 주술적인 처방을 알려주는 위치에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는 동료 고판수와 함께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에게 적대적인 관심으로 접근한다. 고판수가 먼저 개종하였고, 심씨는 기독교와 대결하려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존재를 느낀 후 회개하고 자신의 무구를 모두 불태운 후 개종한다.

1. 『한국의 새벽』의 한국종교 묘사

보배가 속한 전통사회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교도의 세계이다. 그 어둠을 대표하는 것이 귀신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페티시(fetish)를 지닌 이들로 묘사된다.

> 보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씨 형제와 마주쳤다. 그들은 둘 다 귀신이 들렸는데(demon-possessed), 가슴엔 줄로 목에 건 바구니가 있었다. 그 안에는 쇳조각, 돌멩이, 헌 짚신짝, 더러운 헝겊 조각 등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바구니엔 귀신이 살았다.[34]

보배가 삶의 고통 속에서 의존하는 종교적 수단도 상세히 묘사된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후 무당 심씨가 진오귀굿을 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35] 보배가 아들 낳기를 희망할 때는 고판수의 도움을 받아 백일기도를 드렸다. 이 장면에서는 절에 있는 타락한 승려 묘사와 기도의 효과가 없었음을 상세히 주장하였다.[36]

무당 심씨의 동료이자 경쟁자인 고판수는 독자적인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것으

---

34) Annie Laurie Adams Baird,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17; 애니 베어드, 유점순 옮김,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디모데, 2006), 55.

35) Baird, *Daybreak in Korea*, 43.

36) Baird, *Daybreak in Korea*, 51-52.

로 묘사된다. 상세히 묘사된 그의 기도 장면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가 동굴에서 입산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부처님이나 삼신제왕이 아니라" "사탄의 힘과 존재"였다. 사탄과의 조우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고판수는 자기 앞에 서있는 지옥의 세 괴물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여자였다. 뱀의 머리를 가졌고 증오와 원한이 가득 찬 귀신이었다. 다른 하나는 자라다만 사내아이였다. 머리가 세 개이고 꼬리가 일곱 개 달려 있었다. 다른 하나는 거인 남자였다.37)

이런 식의 사탄 묘사는 한글 소설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미국 독자를 의식한 상상의 묘사일 가능성이 크다. 고판수는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새로운 마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힘은 소설 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는 힘의 한계를 느낀 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개종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큰북을 파괴하는데, 이 장면은 '페티시 파괴'의 동기를 보여주는 상세한 묘사로 주목할 만하다.

> 고판수는 과거와 철저하게 손을 끊으리라 결심했다. 큰북이야말로 죄악과 속임수로 점철된 과거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북을 발로 차 가죽을 찢은 다음, 도끼로 참나무 북채를 찍어 산산조각을 냈다, 이제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38)

무당 심씨는 어둠의 세력의 대표자인 동시에 호기심 때문에 복음의 빛을 소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 자신도 개종하여 적극적인 개신교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심씨는 호기심에 선교사의 집에 가서 심술궂은 질문을 던지지만, 나오면서 빈 토마토 깡통을 얻어온다. 그러고는 "심씨는 선교사 집에서 돌아와 토마토 깡통에서 상표를 떼어 벽에 장식으로 붙였다. 깡통은 페티시를 담

---

37) Baird, *Daybreak in Korea*, 53-54.

38) Baird, *Daybreak in Korea*, 92-93.

아두기 위한 높은 선반에 두었다."[39] 서양의 새로운 물건이 제단에 모셔지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후의 개종을 암시한다.

심씨는 개신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한 인물이었다. 그의 새벽기도는 '해골에 이슬을 받아오는 의식'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역시 무속을 사탄화 시키는 상상된 이미지로 보인다.[40] 그러나 그의 저항은 극적으로 전환되어 "사도 바울처럼" 이전의 것을 파괴하는 힘이 된다. 개종은 기존의 물질적 환경의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다.

>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심씨가 한 첫 번째 행동은 그를 전적으로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안과 마당 구석구석에서 진절머리 나는 페티시들을 무더기로 꺼내왔다. 최근 물건도 있었지만, 다수는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상해가고 있었던 것들이다. 그중에는 낡고 해진 짚신, 오물과 함께 썩은 천 조각들, 기도와 주문이 쓰인 종이, 사람 뼈, 짚으로 만든 형상, 깨진 접시와 호리병 조각, 비단과 무명으로 만든 귀신 옷이 있었다. 귀신 옷은 귀신이 보고 기뻐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어두운 집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다.
>
> 심씨는 문 앞에 쌓인 이 쓰레기더미에 자신의 모든 무구(巫具), 무복(巫服), 부채, 징을 얹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날 만식이네 마당에 버려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모를 것들을 주워왔다. 어린아이 몸이라고 속여 넘겼던 털 빠진 마른 개 사체, 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속여온, 차마 말할 수 없는 재료로 만든 알약, 가루약, 고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을 가득 담은,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강물을 떠다 채운 해골이 있었다.[41]

이후 심씨는 전도부인으로 활동한다. "심씨는 복음서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마귀 쫓는 권세를 준 것을 읽고, 자신도 굳은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42] 굿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 귀신을 쫓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된

39) Baird, *Daybreak in Korea*, 69.

40) Baird, *Daybreak in Korea*, 95.

41) Baird, *Daybreak in Korea*, 99-100.

42) Baird, *Daybreak in Korea,* 102.

다.[43)]

그림 4 어린 시절 보배의 집(『한국의 새벽』, 19)

2. 묘사와 종교 현실의 관계

애니 베어드는 서문에서 책의 이야기가 "한국 선교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매일같이 닥치는 사실과 사건들을 모아 정리한 것(compilation and rearrangement)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44)]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 현실성을 지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현실 그 자체의 진술임을 뜻하는 것일 수는 없다. 이어지는 글에서 애니 베어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강조하고, 이러한 황폐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최초의 하느님 형상을 닮은 성격으로 회복"시켜 준다고 밝힘으로써 소설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한국 현실의 재료는 선교소설의 이분법적인 구도 아래 배열되었다. 소설에서 한국은 상상된 타자로, 이국적인 이교도 이야기로 미국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소설

43) Baird, *Daybreak in Korea,* 104-6.

44) Baird, *Daybreak in Korea*, 5.

은 선교소설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표상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장소이기도 하다.[45]

책에 사용된 사진은 현실의 재료가 소설에 짜깁기(patchwork)된 방식을 암시한다. "보배 어린 시절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그림4)은 분명 한 조선인 하층민의 집을 찍은 사진일 것이다. 소설과 상관없이 촬영되었을 이 현실의 사진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재료로 소설 세계 안으로 삽입되었다.[46]

그림 5 학교 가는 보배(『한국의 새벽』, 속표지)

책 첫 장을 장식하는 "교회 가는 보배"의 사진도 분명 조선 여자아이의 사진 중 선택된 것이었을 것이다.[47] 보배는 애니 베어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 주인공이다. 보배는 『고영규전』에서 시집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내로, 복음을 듣고 남편과 새로운 삶을 찾는 인물로 등장한다. 『한국의 새벽』의 보배는 『고영규전』의 보배의 영어판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인물이다.

45) Hyaeweol Choi,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121-22.

46) 다른 용도로 이전에 촬영된 한국 사진을 소설에 삽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독립선교사로 활동한 진 페리(Jean Perry)가 1906년에 출간한 소설에서 장승 밑에 할아버지가 있는 사진이 삽입되었다. 다른 책에서 장승 사진으로 등장했던 사진인데, 이 책에서는 이 사진은 "집에 있는 석수"라는 장의 배경 사진으로 쓰였다. Jean Perry, *"Chilgoopie the Glad": A Story of Korea and Her Children* (London: S.W. Partridge, 1906), 127.

47) 옥성득은 보배 사진이 1907년 평양 숭의여학교 학생의 사진이라고 추정하였다.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사진으로 보는 한국 교회, 1900-1910』(홍성사, 2009), 251. 극단적인 예이지만, 비슷한 시기의 아서 노블의 선교 소설 『이화』에 사용된 조선 소녀의 사진은 훗날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기생 엽서에도 볼 수 있다. Hyaeweol Choi, "The Visual Embodiment of Women in the Korea Mission Field," *Korean Studies* 34 (2010), 117-8.

하지만 『한국의 새벽』에서는 여성의 고난이 극단화된다. 영어판에는 열두살 때 팔려갔다가 열여덟에 남편이 죽고 다시 팔려간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상황이 삽입되었다. 무당이나 판수를 만나 종교적 도움을 받는 장면도 확대되어 서술되었는데, 여기서도 상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세부 장면들이 삽입된다.

보배와 관련된 현실의 재료 하나를 애니 베어드가 선교사 생활을 회고한 책 『선교 생활의 내면』(Inside Views of Mission Life)에서 찾을 수 있다. 애니 베어드가 순회전도여행을 하다가 만난 여성 가운데 "보배 할머니"가 있었다. 보배 할머니는 아들과 관계를 맺은 기생과 싸웠지만, 하느님 은혜로 평안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였다.[48] 소설과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애니 베어드가 보배라는 이름을 한국인과의 만남에서 얻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개종한 무당 심씨(Sim Ssi)는 실존 인물이다. 남문외교회의 심씨는 무당 출신의 전도부인이었다. 무당으로서 한 일을 회개하고 무구를 불태우고 극적으로 기독교 개종을 한 일, 개종한 후 기도로 병을 낫게 하며 신자를 모으는 전도부인 활동을 한 일은 현실의 심씨 부인 사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49] 다만 그의 무당 활동이나 개종 과정의 세부 묘사에는 상상되었다고 보이는 과장된 내용이 들어있다. 『한국의 새벽』이 애니 베어드가 경험한 한국의 종교 현실이 재료가 되어 구성되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재료는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미국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악마화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고 때로는 상상의 묘사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애니 베어드의 영문 소설에서 한국 종교문화의 현실을 읽어내는 동시에 한국이 타자화되는 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Ⅴ. 맺음말

48) Baird,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119-21.

49) 옥성득,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새물결플러스, 2016), 472-73.

개신교 선교사의 소설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경험하고 들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애니 베어드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일의 『선구자』, 아서 노블의 『이화』, 구타펠의 『옥분이』 등의 소설에서도 한국 현실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50] '소설'이긴 하지만 창작된 부분은 전체 구성이나 이야기를 연결하는 정도이지, 그 안의 에피소드나 인물 설정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석되기만 한다면, 선교소설은 당대 한국 현실, 특히 종교문화를 증언하는 자료로서 가능하다.

애니 베어드가 다른 선교사 작가와 다른 점은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 소설'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영어 소설도 썼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한국에 관해 쓴 소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선교사 저술가이다. 한글 소설과 영어 소설에서 묘사된 한국종교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어조나 세부 사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한국인에게 전도를 목적으로 쓰인 한글 소설에서 한국종교에 관한 세부 묘사는 큰 의미가 없었다. 대신 선교사가 생각한 전통종교의 폐단을 설교와도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미국인에게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영문 소설에서는 세부 사항이 상당히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국적(exotic) 묘사들이 삽입되었다. 미국인 독자에게 익숙한 타자화 공식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애니 베어드 소설에서 재현된 한국종교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소설 내 구도 속에서 악마화된 존재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부정적 묘사가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조선말 여인의 삶에 대한 유의미한 관찰을 담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는 것처럼, 여성이 의존한 종교적 수단에 관한 섬세한 묘사는 이 소설을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준다. 애니 베어드는 당시 무속 실천의 여러 모습에 대해 섬세한 묘사를 제공한다. 이는 어느

50) James Scarth Gale, *The Vanguard: A Tale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4); W. Arthur Noble, *Ewa: A Tale of Korea*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6); Minerva L. Guthapfel, *The Happiest Girl in Korea: and Other Stories from the Land of Morning Calm*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선교사 자료에서도 찾기 힘든 내용이다.

애니 베어드의 무속 서술은 역설적으로 무속이 갖는 종교적 힘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고영규전』은 여성의 무속적 기도가 복음을 전달받기를 '비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기도는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 실천이 개신교 실천으로 이어졌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새벽』에서 무당 심씨의 기도와 귀신 쫓음이 개종 후 전도부인의 능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그는 개종한 심씨를 '오늘날의 축귀자'(Modern Exorcist)라고 부른다. 애니 베어드가 무속의 굿과 기독교의 축귀(逐鬼)를 연장선상에서 이해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애니 베어드는 자기 교회에 처녀귀신의 괴롭힘을 받는 아기 엄마가 왔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귀신(evil spirit)을 물리치고 싶다는 마음에 손을 꼭 잡아주었고 4주 만에 여성은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애니 베어드는 자신이 축귀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수줍게 말하는데, 이는 그가 한국의 종교경험과 접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승인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51]

기본적으로 한국종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애니 베어드는 소설을 통해 당대의 종교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의 소설에서 조선 말 여성들이 삶의 어려움을 어떠한 종교적 수단을 통해 감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애니 베어드가 여성들과 친밀하게 경험을 나눈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애니 베어드 소설에서 그가 한국종교를 경험하며 상호작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가 전통적 기도의 효험을 암시하는 장면이나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장면은, 한국종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험적 기반을 공유하였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한국종교, 애니 베어드, 만남, 무속, 개신교 선교, 여성의 종교

원고접수일: 2021년 11월 14일

---

51) Baird,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129-31.

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9일

참고문헌

"Biography of Annie Laurie Adams Baird by William M. Baird, 1928" in Annie Laurie Adams Baird Papers. (Pearl Digital Collection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https://digital.history.pcusa.org/islandora/object/islandora:113212

Baird, Annie L. A.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13; 애니 베어드.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 성신형·문시영 옮김. 선인, 2019.

_____.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애니 베어드.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유점순 옮김. 디모데, 2006.

Choi, Hyaeweol.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Perry, Jean. *"Chilgoopie the Glad": A Story of Korea and Her Children.* London: S.W. Partridge, 1906.

Rhodes, Harry A.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Seoul: Chosen, Post Chapel, John D. Wells School, 1934.

곽승숙. 「애니 베어드 신소설 연구: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2 (2014): 139-59.

김인섭.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회심(回心)의 두 유형: 최병현의 「성산명경」과 애니 베어드의 「따라 따라 예수따라 가네」를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13-2 (2008): 23-46.

리처드 베어드.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 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2016.

박효은. 「『텬로력뎡』 揷圖로 읽는 救援의 길」. 『《텬로력뎡》 삽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서신혜. 「『고영규전』의 서술 방식과 창작 기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2014): 135-60.

애니 베어드. 『고영규전』.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_____. 『싯별전』.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_____. 『쟝자로인론』.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5.
_____. 『구한말 선교사 애니 베어드의 한글 선교소설』. 장경남·오지석 옮김. 보고사, 2021.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의 『고영규전(高永規傳)』(Two Short Storie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12 (2006): 75-96.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사진으로 보는 한국 교회, 1900-1910』. 홍성사, 2009.
_____.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새물결플러스, 2016.
윌리엄 마틴 베어드·애니 베어드.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한국어 학습서』, 윤영실 옮김. 선인, 2020.
유영식. 『착혼목쟈: 게일의 삶과 선교』. 진흥, 2013.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이숙.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사』. 보고사, 2020.
이인성. 「애니 베어드의 선교 문학의 세계」. 『문학과 종교』 13-2 (2008): 225-50.
조은희. 「개항장의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0.
차봉준. 「근대 전환기 기독교 소설과 메타모포시스: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2 (2021): 329-54.
허순우. 「19세기 말 애니 베어드의 문서선교에 대한 관심과 <샛별전>」. 『한국고전연구』 52-1 (2021): 203-34.
_____. 「대속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전도지 <장자노인론>」. 『동아시아고대학』 62 (2021): 177-205.

Abstract

The Religions of the Other Represented in the Novels of Annie L. A. Baird

Bhang, Won-il (Soongsi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rtrayal of Korean religion in the missionary novels written by Annie Laurie Adams Baird (Ahn Ae-ri, 1864-1916), an early Protestant missionary in Korea. Her novels, published in the 1890s and 1900s, contain detailed descriptions of women's religious life in the Joseon dynasty. Unlike other missionaries, she wrote “Korean novels” with her excellent Korean language skills. Since she also wrote a novel on Korea in English, we can compare her Korean and English works. Annie Baird represented Korean religion negatively in her novels. In The Story of Old Chang, Korean religions provided excuses for villagers to reject the Gospel. In The Story of Sait Pyul, Shamanism appears as a strong competitor to Christianity. In The Story of Ko Young-gyu, Shamanism was a main religious means for Joseon women’s troublesome life before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The English novel Daybreak in Korea, published in New York in 1909, contains more demonized and exotic images of Korean religions. They were devices in the novels to arouse interest in Korea from American readers. However, since Annie Baird's novels are based on Korean realities, they have value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religious life of the time. Based on her experience of working closely with Korean women, she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ir religious practices.

Key Words: Korean religion, Annie Laurie Adams Baird, encounter, Shamanism, Protestant mission, women's religion